



**제 목 :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**

- ◆ **금융위·금융研**은 4.15일 **오픈뱅킹 활성화**를 위한 **세미나**를 개최하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**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** 등을 논의
- \* 일시 : '19.4.15(월) 14:00~16:00, 장소 : 은행회관 국제회의장(2층)
- \*\* 오픈뱅킹 :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,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
- **최종구 위원장**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**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**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**인프라임**을 강조하며, 이를 통해 **혁신적 서비스 출현**과 **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**될 것으로 기대
- **향후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노력**과 함께, 금융 혁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**금융결제업 체계 개편, 빅데이터 활성화** 등도 차질 없이 추진

## 1 세미나 배경

- 전 세계적으로 금융결제\*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, 주요국들도 결제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
  - \*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
- 우리나라의 경우, 그간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\*으로 인해 혁신적 결제서비스, 금융플랫폼 출현 등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
  - \*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,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

- 이에 지난 2.25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」을 발표하고,
-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은행권과 핀테크기업이 소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
- ※ “개방형 금융결제망[오픈뱅킹] 구축,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”(19.2.25), “[알기쉬운 핀테크] 금융권 Open API”(19.2.21) 보도자료 참고
- 금일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과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,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
- 우리나라에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, 향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였음

#### <세미나 개요>

- 제목 : 성공적인 오픈뱅킹(Open Banking)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
- 일시/장소 : '19.4.15(월) 14:00~16:00 / 은행회관 국제회의장(2층)
- 주최 : 금융위원회 · 금융연구원
- 구성

시 간	구 분	비 고	
13:40~14:00	등 록		
14:00~14:20	개회사	손상호	한국금융연구원 원장
	축 사	최종구	금융위원회 위원장
		김학수	금융결제원 원장
14:20~15:05	발 제	최석민	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 실장 * 오픈뱅킹 세부 구축 방안
		전상욱	우리금융연구소 본부장 *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
		박선영	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* 오픈뱅킹의 이론적 측면
		서정호	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* 오픈뱅킹 도입의 영향 및 향후 과제
15:05~15:50	종합토론	서정호 (사회)	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	김영전	금융보안원 보안전략본부장
		김영환	페이먼트 대표
		민응준	핀크 대표
		서춘석	신한은행 부행장
		송현도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
		윤성관	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
		이승건	비바 리퍼브리카 대표
15:50~16:00	질의응답	정중호	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
		참석자	

##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

-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결제 부문의 선점을 위해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, 주요국들은 시스템 개방 등을 통해 과감하게 대응중인 반면,
  -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
-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오픈뱅킹을 추진중이며, 그 첫 단계로 금결원과 은행권에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
  - 특히, 금번에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**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**임을 강조
    - \*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은행의 계좌 현황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은행의 이체업무가 통합되는 수준으로 진일보
- 한편,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,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당부
  - ① 시스템 구축이 연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
  - ② 저비용,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,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
  - ③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사전 준비에 만전
  - ④ 결제인프라는 안정과 신뢰가 중요하므로 보안 수준과 점검을 강화
  - ⑤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, 지속적 보완과 유연한 운영을 당부
- 끝으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**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**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,
  - 금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**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**된 만큼, 이를 통해 **예상을 뛰어 넘는 혁신적 서비스**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
  - 정부도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포함하여 금융결제업 개편,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

### 3 향후 계획

-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은 세부내용 확정 후 금결원 전산시스템 구축, 각 회사별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
  - 은행권에서 ‘19.10월부터 우선 테스트하고 ‘19.12월중 전면 시행
- 오픈뱅킹 법제도화 및 전자금융업 개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적극 추진
  - 그밖에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」 세부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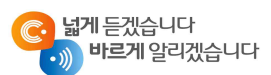
#### ※ 배포자료 (총 4건)

1. 「축사」 :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
  2. 「오픈뱅킹 세부 구축 방안」  
: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
  3. 「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」  
: 전상욱 우리금융연구소 본부장
  4. 「오픈뱅킹의 이론적 측면」  
: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
  5. 「오픈뱅킹 도입의 영향 및 향후 과제」  
: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
-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,  
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